

부산일보 창간 60주년 축하 메시지

부산일보 창간 예순 돌을 축하드립니다.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부산일보는 우리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시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와 알찬 정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최고의 지역 일간지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유력한 석간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부산일보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부산은 지금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고, 부산북항 재개발과 미군부대 이전은 부산이 한층 여유롭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컨벤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부산을 세계에 알렸고, 얼마 전에는 '아시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산시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질 높은 삶의 조

건을 고루 갖춘 품격 있는 도시, 동남권 전체의 번영을 이끄는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책임 있는 주장으로 부산일보가 이러한 길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간 6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부산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